

CONTENTS

헤드라인

1

일본, 제품 함유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표시제 도입 검토

해외동향

2

- UN, 2012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 개시
- 유럽의회, 교토메커니즘 미참여선진국 제품에 무역조치 검토 요구
- EU환경장관,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 동참은 선진국과 다른 방식"
- EU, 통합오염방지관리지침의 재검토 임박
- EU, 완구류 PVC에 대한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지침 제정 작업 재착수
- 유럽자동차메이커, 지난해 자동차 평균 CO₂ 배출량 목표치에 미달
- 캐나다, 도로내 납·수은 함량 기준 강화
- 혼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에 인간힘
- 중국, EURO 기준에 대응하는 자동차 배출 기준 공표

전문가 리포트

6

중국판 RoHS, 공표 앞둔 '속 빈 강정' - 대만대 양희철 박사

주요단신

7

- 일본, CO₂배출저감장치 설치한 주택에 보조금
- 미리 보는 항공산업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나리오
- ASEM, 2012년 이후 기후변화대책 필요성에 공감
- 'REACH, 산업계에 영향 크지 않다'
- 스페인, 페타이어 재활용전문기업 설립

관련 국제회의 정보

8



일본, 제품 함유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표시제 도입 검토

- 5대 가전제품 대상으로 내년 여름부터 실시 고려 -

일본은 내년 중순부터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내 함유물질을 표시하는 정보표시제 실시를 적극 검토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는 '그린 프로젝트 체인의 실현을 위해'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5월 25일 까지 의견을 모집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검토해온 EU의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상용정책으로 폐기 및 재활용 처리시 주의를 요하는 물질의 함유에 관한 표시제를 제안했다. 또한 제품 전과정에서 고려한 제품설계(에코디자인)의 구체화 및 통일화나 제품함유물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대응의 하나로 제품 함유물질의 정보표시제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대상물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대상물질의 선정기준은 마련하고 있는데,

- ① 납처럼 다른 물질과 혼합시 재생 자원의 품질 저하나 재활용공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
- ② 수은과 같이 폐기시 처리공정상 잘못 취급할 경우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③ LCD에 사용하는 인듐(Indium)과 같은 희유원소로 별도 회수 및 재활용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상제품으로는 TV,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세탁기와 PC로서, 현재 일본의 재활용법은 이 5대 가전제품에 대해 폐기시 제조업자가 회수책임은 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 안이 채택되면 제조업자는 해당물질의 함유량과 사용물질의 성분을 공개표시해야 한다.

일본은 더 나아가 이러한 조치를 국제규범으로서 타국에서도 채택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보고서는 제3자에 의한 제품 테스트 정보제공의 확대, 사용자로부터 제조업자에게 제품평가를 피드백하는 방안, 제품의 소재 및 부품 제조를 포함한 공급자간의 환경정보 제공을 제안하고 있으며, JIS 규격의 활용과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에코디자인전문위원회(TC 111)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UN, 2012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 개시

지난 5월 16~17일 양일간 독일 본에서 150개국 500여 정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교토의정서상의 1차 이행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방지 대책에 관한 UN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지난해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상호정보교류의 증진 필요성을 제기하여 개최한 비공식 정부 전문가 세미나이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가 현재의 기후변화정책이나 향후 수립할 정책에 대한 소개 및 사전 분석을 주로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명목상으로는 단지 기후변화협약 회원국간의 기후변화방지 대책에 대한 '비공식 정보교류'의 장이라고는 하나, 올해 말 몬트리올에서 개최 예정인 당사국총회 논의의 기초 작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요 논의사항중에는 미국, 호주와 같은 교토의정서 의무이행 거부국가와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신흥개도국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졌다.

각국의 정책 및 입장 발표시간에 미국은 자국GNP의 상당 부분이 탄소 배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 펴나갈 것과 현재 국가목표는 2002년부터 10년간 18%를 감축하는 것임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미국은 관련 기술개발에 연간 약 50억불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표를 맡은 미국의 Watson박사는 "2012년 이후에도 이러한 감축노력을 계속할지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다"면서 "항공사에 대한 기후변화세 도입도 9·11사태이후 미국 항공사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도국 중 중국 다음으로 많은 CO₂를 배출하는 인도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에 관한 합의를 어기고 배출을 계속 늘리는 선진국을 비난하면서, 급속히 성장중인 자국의 에너지 소비산업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럽의회는 이번 세미나 개최 직전 EU 집행위로 하여금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조치를 요구한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회의의 성격상 회의결과를 종합한 합의문 등은 채택되지 않았으나, 참석한 각국 정부관계자는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방지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지노력이 필요하며, 올해말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 및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총회가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

출처 | EU집행위, 로이터통신 등



유럽의회, 교토메카니즘 미참여선진국 제품에 무역조치 검토 요구

유럽의회는 지난 5월 12일 EU집행위에 국제적인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과 호주 기업 제품에 대한 무역조치 등을 요구한 결정문을 채택했다.

지난 5월 16일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전문가 세미나에 앞서 유럽의회는 EU집행위에 이 세미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회의부터 시작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위한 주요 사안 및 방향을 강조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결정문에서 의회는 EU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서 주요한 역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해상 및 항공을 포함한 모든 교통부문에서의 비용효과적인 조치와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을 EU집행위에 주문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포함한 향후 기후변화대책 국제회의에서 EU가 기설정된 산업혁명 이전 수준보다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향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의회는 미국과 호주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동참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이들 국가내의 생산자는 EU역내 경쟁생산자와 비교할 때 사실상 경쟁력차원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무역상의 국경세 조정조치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집행위에 요구했다.

그밖에도 최빈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후변화노력에 동참케 하고, 개도국은 EU가 EU회원국의 수출 신용조사기관(credit agency) 등을 통해 마련한 강력한 제도하에 동참케 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유럽의회



EU환경장관,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 동참은 선진국과 다른 방식”

-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국제논의 이끌기 위한 새 패러다임 준비 -

지난달 뉴욕에서 개최된 UN지속가능개발위원회(CSD) 연례회의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EU집행위 디마스 환경장관은 워싱턴의 브룩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에서 기후 변화문제에 대해 EU의 향후 정책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디마스 환경장관은 교토의정서의 제1차 의무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제도에 대해 “EU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선택사항은 없다. 기후변화를 방지했을 경우의 손해는 올바른 어프로치를 선택했을 경우 배출저감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점이 연구에 의해 분명히 확인됐다. EU집행위에서는 올해 초 향후 기후변화제도에 포함시켜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첫째는 시장에 기초한 수단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혁신 및 신기술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며, 셋째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을 포함한 주요 배출국가에 의한 배출감축을 위한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디마스는 특히 개도국의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이제 막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개도국에게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배출

감축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른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에너지 수요도 많다는 점에서 기후변



화방지 노력에 참여하기 좋은 이유”라고 강조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에너지원 및 청정기술을 육성하는 정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끝으로 디마스 장관은 “개도국을 움직이는 것은 EU와 미국 공동의 책임”이라며 양국의 리더십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기후변화제도와 관련해서는 교토의정서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산업부문, 특히 항공, 해운, 임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5월 31일 ‘Green Week’ 개회사에서 오는 가을 유럽기후변화프로그램(ECCP)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면서, 덧붙여 연말에 있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새로운 국제협상을 이끌 대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출처 | EU집행위



EU, 통합오염방지관리정책(IPPC) 재검토 임박

EU가 통합오염방지관리지침(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Control : IPPC)의 재검토를 준비중이다. IPPC는 산업오염원을 총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지침으로, 주요산업의 설비 인허가제도를 통해 EU역내에서의 다양한 오염원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제정되었다. 대다수 회원국이 IPPC의 큰 변화를 원하고 있지 않지만, EU집행위는 지금껏 다수 회원국이 IPPC의 이행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고한 2003년 평가보고서 때문에 IPPC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원하고 있는 IPPC 이행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내년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는 기업이 환경영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적가용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에 관한 관련 자료들도 포함할 예

정이다.

또한 집행위는 IPPC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준비 중인데, 첫번째는 이행향상을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및 세계체제과 같은 인센티브의 잠재적 영향과 적법성에 관한 연구이며, 두번째는 IPPC가 다른 지침과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기존 법령을 합리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로서 특히 네덜란드가 지난해 10월 제안한 SO₂ 및 NO_x의 배출권 거래의 가능범위에 대한 조사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위는 소규모 공장 및 양식 등 산업설비의 새로운 범주를 규율하도록 지침의 범위를 개정하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와 환경관련 분야에서의 주제별 전략을 고려하여 IPPC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출처 | EU집행위



EU, 완구류의 PVC에 대한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지침 제정 작업 재착수

1999년 11월에 처음 제안되어 몇 년동안 계류되어 있던 완구류의 PVC에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지침 제정작업이 4년여 만에 다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완구에 대한 특정 프탈레이트의 사용금지지는 한시적 규제(1999/815/EC)를 기한 연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이로 인해 수년간 중단되었던 영구제한에 대한 법규마련 필요성에 지난해 말 각국 장관이 합의하면서 재착수가 예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제안된 지침안을 가지고 지난 5월 24일 유럽의회 제2독회에서 찬반논란을 비롯한 대상범위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3세 미만용 완구류에 대해서만 금지되는 3종의 프탈레이트(DINP, DIDP 및 DNOP)의 경우 3~6세용 제품으로 입안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사용된 경우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로서의 프탈레이트 최대 허용량 기준을 0.1%에서 0.05%로 강화하였으며, 아이들이 완구류를 입에 가져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제(fragrance) 첨가가 프탈레이트 노출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특히 이번 의회의 수정요구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아이들이 입에 물고 있을 때 PVC 재질로부터 용출되는 프탈레이트 허용기준치(migration limit)를 통한 규제를 하겠다는 점과 PVC재질 바닥재와 음식물 용기 등으로 인한 어린이의 프탈레이트 노출위험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향후 프탈레이트 사용금지조치가 완구류의 타제품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EU집행위

→ 유럽자동차회사, 작년 평균CO₂ 배출감축을 1.8%에 그쳐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는 지난해 신차의 CO₂ 배출 감축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5월 11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EU집행위와 약속한 자동차 CO₂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감축해야 할 목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1.8% 감축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EU집행위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2008년까지 평균 140g/km의 CO₂를 배출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3.3%의 감축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지난해 평균 배출량은 160g/km에 달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ACEA 사무국장 Ivan Hodac씨는 “갈 길이 험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결과가 목표달성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교통·환경연합(T&E)은 “1998년 자발적 협약 체결 이후에도 자동차업계는 보다 크고, 무겁고, 힘 좋은 자동차 판매에 집중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런 판매전략은 EU 집행위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120g/km이라는 목표와 양립할 수 없게 했다. 결국 이 같은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비

난하면서, 자동차메이커들이 120g/km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투명한 법적 구속력있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9년 자발적 협약 체결이후 평균 배출량이 많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유럽, 일본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파이낸셜타임즈, T&E

ACEA, JAMA, KAMA의 1995~2003 간 CO₂ 감축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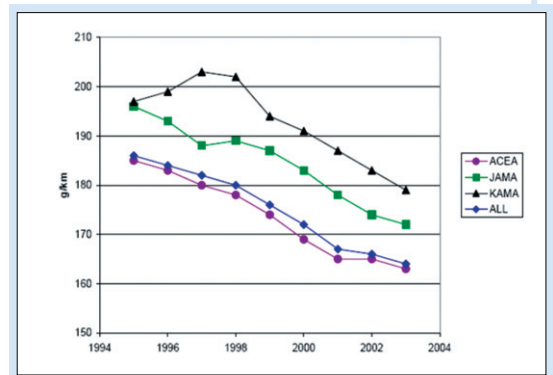


도표 | T&E



캐나다, 도료내 납·수은 함량 기준 강화

캐나다 내에서 판매되는 페인트, 바니쉬, 에나멜 등 도료내 납과 수은 규제가 강화됐다.

캐나다 보건부는 '유해제품법'의 '표면코팅물질규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19일부터 페인트나 에나멜과 같은 도료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안전기준은 '제품 표면에 발라 건조된 후 얇은 고체막을 형성하는 모든 종류의 도료'에 적용되며, 매움재(sealer)와 같이 물체 표면에 사용되지 않는 도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동 안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도료의 납 성분 허용기준은 중량의 0.5%에서 0.06% 이하로, 수은의 허용기준도 중량의 0.001%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도료에 함유된 납과 수은의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

된 원인은 주택 내부나 가구, 장난감 등에 사용된 도료에서 배출되는 납과 수은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특히 어린이들의 원만한 성장에도 큰 위협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캐나다 자국내 도료 제조업체들은 이미 동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생산과정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왔었다. 따라서 자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미국에서 수입되는 도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이번 안전기준이 캐나다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동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외국의 제조업체들은 수출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KOTRA 토론토무역관



→ 혼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에 안간힘

혼다자동차 미국 법인인 American Honda는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판매 증진을 위해서 가정용 가스 충전기를 무료로 대여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혼다자동차는 생산하는 천연가스 자동차는 Civic GX NGC이라는 모델로서, 연간 약 1천대 정도 판매하고 있으나 가스충전소가 충분치 않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판매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이 가정용 가스 충전기 무료 대여 마케팅이다.

혼다 자동차는 이번 마케팅을 위해 FuelMaker라는 가정용 가스 충전기를 판매 리스 하는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가정용 가스 충전기는 산소통만한 크기로 차고 벽에 설치할 수 있다. 리스의 경우 한달에 약 79달러의 비용이 든다. 그

러나 지방정부에서 39달러를 보조해준다. 설치비용은 1,500달러이다.

천연 가스를 사용하는 혼다 시빅 GX의 가격은 21만760

달러이다. 일반 휘발유 사용 차량보다 약 7천달러가 비싸다. 그러나 연료비, 운영비 등이 일반차량의 절반밖에 들지 않을 뿐만아니라, 연방정부의 2천달러 세금 혜택도 있다.

시빅 GX의 경우 하루 저녁 한번 충전으로 약 220마일을 달릴 수 있다. FuelMaker의 존 리온(John Lyon) CEO는 만약 가스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사라지고 집에서 가스를 충전할 수 있다면, 이제 천연가스 자동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KOTRA 워싱턴무역관



중국, EURO 기준에 대응하는 자동차 배출기준 공표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지난 4월 27일 새로운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발표했다. 중국 환경보호총국 과학기술사 관계자는 발표에서 자동차 오염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수단은 보다 엄격한 배출기준을 제정·실시하는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 제정·발표한 배출기준은 '경량차 오염물질 배출한계 및 측량방법' (이하 '경량차배출기준')을 포함하여 중량차의 배출기준, 오토바이 등의 소음배출 기준 등 5종.



특히 '경량차배출기준'은 중국 경량차의 배기가스 기준중 Ⅲ단계와 Ⅳ단계 배출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Ⅲ단계 배출기준은 2007년 7월부터, 경량차Ⅳ호 배출기준은 2010년 7월부터 적용된다. 중국 경량차 배출기준은 EU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지침(70/220/EEC)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어서 동 표준상의 경량차 Ⅲ,Ⅳ단계는 EURO Ⅲ,Ⅳ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이번 EU수준의 환경관련 자동차

배출 규제로 자국 자동차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EURO Ⅲ, EURO Ⅳ는 각각 2000년과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EURO V 기준을 수립중이다.



출처 | 중국 환경보호총국

전문가 리포트



➔ 중국판 RoHS, 공표 앞둔 '속 빈 강정'

대만대 재경법·대륙법연구소 양희철 박사

중국판 RoHS로 알려진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조치'는 현재 의견수렴 및 논증작업이 종료된 가운데, 정보산업부에서의 내부절차 또한 이미 완료되어 관련 부서간의 서명 절차를 남기고 있다. 다만 유해물질 시험검사 방법에 관한 표준제정 작업은 아직 진행중이어서 공표되더라도 당장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제정은 중국 정부가 전자 제품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 중국내 기업들은 해당 '조치'를 "EU의 'RoHS/WEEE 지침'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EU의 RoHS / WEEE는 중국의 가전제품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정보산업부 관계자는 EU의 조치는 관세장벽 외에 또 다른 "Green 장벽"을 두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중국이 관련 제도의 정비와 입법을 서두르는 것 역시 전기전자 기업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의 제고를 통해 중국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중국이 무연화 (lead free) 노선을 채택할지 현재보다 다소 함량을 낮출지 중국학계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동조치의 등장은 이러한 논쟁을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의 의견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무연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전자생산 기업의 발전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정부로 하여금 정책 제정 후에 일정한 과도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은 전자부품에 대하여는 납의 사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며, 한편으로 무연기술의 요구는 관련 부품의 정밀가공·용접 등에서 에너지 과소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환경보호 요구와 상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전자제품내 납 함유량이 1~2%정도에 이르며, 만일 납 함유량을 지금보다 낮추도록 한다면, 수도와 전기 등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며, 환경압력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중국내 전자제품의 관련기술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단기에 이러한 요구를 달성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납 등의 사용금지에는 많은 중소기업 경영 악화를 야기할 것이며, 전체 업종의 동반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둘이켜보면 '중국판RoHS' 제정의 파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중국은 자국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무리하게 EU법 베끼기에 급급한 나머지 어쩌면 중국판 RoHS제정의 해프닝의 하나로 끝날지도 모를 일이다. EU수준에 맞추고 있는 타 중국 환경관련법규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행기간을 늦추거나 규제정도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점차 지는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공표되더라도 '속빈강정'이 될 수 있어 향후 이를 이행할 표준제정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CO₂배출저감장치 설치한 주택에 보조금

일본은 5월 16일 주택에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위한 에너지 효율설비를 도입하는 건축주에게 40만엔을 보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저감모델주택 정비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보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차세대 에너지 절약기준에 적합한 단열자재', '3kW이상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고효율 급탕기'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건축주로서, 전국에서 총 1천건을 모집하여 1건당 40만엔을 정액보조하게 된다.

보조를 받게 되는 주택은 3년간 저감 성적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출처 | 일본 환경성

미리 보는 항공산업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나리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항공산업의 참여와 관련된 EU의 공개의견접수기간이 지난 5월 6일로 마감됐다. 항공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U에서는 지난 199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이 기준년도에 비해 3% 감소한 반면, 항공산업에서만 약 70%가 증가되었다.

이에 EU집행위는 오는 7월 구체적인 항공산업 기후변화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막바지 절차로서 6월 1일부터 개최하는 Green Week 기간에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할 자료로 집행위의 기본 방향을 담은 보고서 최종안을 내놓았다. 이 자료는 EU

ETS(배출권거래제)에 항공산업을 포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시나리오를 열거하고 있어서 선택만 하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ASEM, 지구환경보존원칙에 대한 향후 노력 다짐



지난 5월 6일부터 교토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제7차 외무장관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등 지구적 차원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방지 제도에 관한 논의를 시급하게 개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도쿄에서 개최된 '3R 이니셔티브 각료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순환형 사회 구축을 향한 노력에 대해 공감하였다.

또한 불법 벌채 방지와 해양 환경보호의 강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의 향상, 에너지 안전보장의 강화,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나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포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실시와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조기경계시스템의 확립 등을 제언했다.

출처 | 제7차 ASEM 회의

'REACH, 산업계에 영향 크지 않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발효되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에 EU집행위가 잔뜩 고무되어 있다. 지난 4월 27일 발표된 이 보고서

는 그동안 REACH에 대해 EU집행위가 실시한 영향평가가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집행위와 산업계(UNICE/CEFC)가 합의하여 산업계의 주도로 민간기관(KPMG)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REACH에 의해 비용이 증가하지만, 생산·유통·사용 단계에서 거의 흡수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생산량이 적은 화학물질 외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REACH-영향평가 추가연구'라는 주제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유럽연합산업연맹(UNICE)과 유럽화학산업협회(CEFC)가 위탁하여 지난 1년여간 자동차, 화학, 포장, 전기산업을 비롯하여 무기화학산업(금속, 시멘트, 제지 등)의 공급망(생산, 유통, 이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출처 | EU집행위, UNICE/CEFC

스페인, 세계적 타이어회사가 폐타이어 재활용전문기업 설립

세계적인 다국적 타이어회사인 미쉐린, 굼이어-던롭, 피렐리, 브릿지스톤, 컨티넨탈 등 5개사는 지난 5월 26일 폐타이어 재활용 전문업체 'Signus Ecovalor'를 스페인에 설립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회사는 스페인 정부가 타이어 재활용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타이어 제조사가 취한 대응조치로서, 2006년 7월부터 EU폐기물매립지침에 따라 폐타이어의 매립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그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 2006년부터 스페인 전역에 걸쳐 운영할 예정인데, 폐타이어의 수집, 분류, 폐기, 재활용 등 폐타이어의 모든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출처 | elmondo motor

공 지 사 항

-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 ⇒ 본지의 궁금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아래 환경마크협회 TEN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TEN 온라인정보시스템(www.ten-info.com)이 5월 24일 개설되었습니다.
- ⇒ 환경마크협회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5년 7월부터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국제회의의 정보

- 1 5.30. ~ 6. 3. 카르타헤나 생물안전성 의정서 제2차 당사국총회, 캐나다 몬트리올
- 2 6. 1. ~ 6. 3. UN 세계환경의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 3 6. 6. ~ 6. 8. 제11차 국제지속가능개발 연구컨퍼런스, 핀란드 헬싱키
- 4 6. 6. ~ 6. 8. 유럽·북아시아 산림법 이행 및 관리 (FLEG) 컨퍼런스, 러시아 모스크바
- 5 6.13. ~ 6.15. 비즈니스와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미국 뉴욕
- 6 6.14. ~ 6.15. 환경정책과 민간기업에 관한 OECD컨퍼런스, 미국 워싱턴DC
- 7 6.16. ~ 6.17. 다자간환경협약(MEA)과 민간투자에 관한 OECD워크샵, 핀란드 헬싱키
- 8 6.20. ~ 6.24. 제2회 국제 녹색지속가능화학 컨퍼런스, 미국 워싱턴
- 9 6.27. ~ 7. 1. 제25차 몬트리올 의정서 워킹그룹 및 제2차 특별당사국회의, 캐나다 몬트리올
- 10 6.28. 통합 폐기물관리전략 컨퍼런스, 영국 런던
- 11 7. 5. ~ 7. 6. WTO 무역환경위원회 정례회의(CTE), 스위스 제네바
- 12 7. 7. ~ 7. 8. WTO 무역환경위원회 특별세션(CTEss), 스위스 제네바
- 13 7.12. ~ 7.14. 제3차 유독성 산업화학심포지엄, 미국 리치몬드

2005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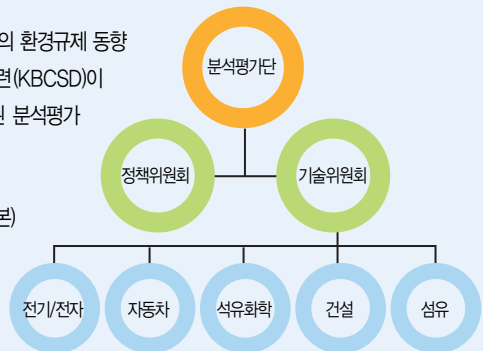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 | | 1 | 2 | 3 | 4 |
| | | | 1 2 | | | |
| 5 | 6 | 7 | 8 | 9 | 10 | 11 |
| | 3 4 | | | | |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 5 | 6 | | 7 | |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8 | | | | | |
| 26 | 27 | 28 | 29 | 30 | | |
| | 9 | 10 | | | | |

2005년 7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 | | | | 1 | 2 |
| | | | | | | |
| 3 | 4 | 5 | 6 | 7 | 8 | 9 |
| | | 11 | | 12 | |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13 | | |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 | | | | |
| 24/31 | 25 | 26 | 27 | 28 | 29 | 30 |

TEN시스템운영체제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 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네트워크 운영은 환경마크협회, KOTR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주 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환경마크협회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전 화: 02-358-6800(#133) | 팩 스: 02-358-8561 | 이메일: tomasyoon@kela.or.kr